



U20월드컵 결승전 실시간 시청률 42.49%

MBC TV 20.50% 최고

이렇게 우승컵은 놓쳤지만 오랜만에 모두가 대동단결한 밤이었다.

16일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이하 한국시간)부터 2시 55분까지 KBS 2TV, MBC TV, SBS TV 지상파 3사가 중계한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 실시간 시청률 합은 무려 42.49%로 나타

났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에콰도르와의 준결승 실시간 시청률은 11.01%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이다. 이날은 결승전이기도 한데다, 대부분이 쉬는 일요일 새벽에 중계된 만큼 온 국민의 눈이 이 경기에 쏠렸다.

채널별로는 MBC TV가 20.50%로 가장 높았고 SBS TV 14.72%, KBS 2 TV 7.27% 순이었다. /연합뉴스

집밥 백선생 → 3대천왕 → 푸드트럭 → 골목식당 → 고교급식왕 → 유튜브

백종원 “요리 예능 계속 확장하고 있어유~”

방송출연 최종 목표는 요식업에 대한 인식 개선

외식업에 좋은 의미 두고 진출하는 사람 늘어

“계속 요청이 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섭외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웬만하면 하나 보다’ 하겠지만 백종원(52)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히스토리를 보면 저마다 테마가 분명하고, 메시지는 조금씩 확장됐다.

백종원이 방송가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역시 2015년에 나란히 시작한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과 tvN ‘집밥 백선생’에 출연하면서부터다.

이때의 테마는 ‘요리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였다. 당시에는 별명도 ‘백주부’였다. 요리 한 번 하려면 온갖 레시피와 계량컵을 늘어놓고 부담스러운 한 사람에게 백주부는 누구나 요리와 친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그가 들려준 콩치 통조림으로 콩치조림 만드는 법, 만능 간장 비빔 등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레시피로 남았다.

이후 그는 ‘본업’인 식당으로 눈을 돌

렸다. SBS TV ‘백종원의 3대천왕’으로 맛집 탐방에 나섰다. 이전에도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요식업 전문가인 백 대표가 직접 맛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포맷이 신뢰도를 심어줬다.

그는 특히 단순히 맛만 따지는 게 아니라 대중이 인정한 맛집 사장의 장인 정신과 음식에 대한 진심까지 짚어내면서 요식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 노력했다.

‘3대천왕’으로 요식업 인식개선의 주춧돌을 다진 백 대표는 2017년 같은 채널 ‘백종원의 푸드트럭’으로 보다 본격적인 액션에 나섰다. 지금 보면 ‘골목식당’을 시작하기 전 실험 단계였던 셈이다.

약 1년간 방송된 ‘푸드트럭’에서 백 대표는 소비자본으로 요식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장년들에게 자신만의 요리와 사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화제가 됐다. 아는 것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백 대표 조언에 따라 안정

케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큐멘터리 같은 예능에 많은 시청자가 빠져들었다. 백 대표는 물론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와중에도 외국 음식과 그에 얽힌 문화를 함께 들려준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나 전문가로서 심사 능력을 보여준 ‘한식 대결’ 시리즈에도 간간히 출연했다.

그러나 한동안 ‘골목식당’에 주로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tvN ‘고교급식왕’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외연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고교급식왕’은 요리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백 대표 도움을 받아 급식을 완

었다.

이러 지난해부터 방송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쇠락한 골목상권을 찾아다니며 성공한 요식업계 인사로서 더 근본적인 노하우 전수와 업계 인식개선에 골몰한다.

이제 자연스럽게 ‘선생님’, ‘대표님’으로 불리는 그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는 식당 주인들이 백 대표와 시청자를 함께 혈압 오르게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든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는 여전히 쏠쏠하다. 최근에는 서울을 벗어나 지역 상권을 살피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 장기적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 대표는 물론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와중에도 외국 음식과 그에 얽힌 문화를 함께 들려준 tvN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나 전문가로서 심사 능력을 보여준 ‘한식 대결’ 시리즈에도 간간히 출연했다.

그러나 한동안 ‘골목식당’에 주로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tvN ‘고교급식왕’이나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외연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고교급식왕’은 요리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백 대표 도움을 받아 급식을 완

성하며 대결하는 내용이다. 백 대표는 출연에 대해 제작발표회에서 “학교 급식 중 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돈보다 욕을 많이 먹는다. 급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럿이서 고민해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다.

채널 오픈 사흘 만에 100만명 이상이 구독한 유튜브 ‘백종원의 요리비책’은 “제대로 된 레시피를 전달하겠다”는 초심을 담았다. ‘자체 플랫폼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백 대표는 15일 통화에서 최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데 대해 결국 최종 목표는 ‘요식업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똥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외식문화 개선을 바란다”라며 “외식업에 좋은 의미를 두고 진출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돈 벌겠다고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돈을 벌겠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분이 늘어나 외식업계 경쟁력도 는다”라고 했다.

결국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연합뉴스

장르극 탈 쓴 ‘검법남녀2’…시즌1보다 진화

시즌1이 프리퀀스 느낌이 강했다면, 시즌2는 작정하고 제대로 만든 장르극의 면모를 풍긴다.

지난 3일 방송을 시작한 MBC TV ‘검법남녀2(사진)’는 법의관과 검사라는 두 전문직이 공조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아낸 의학 수사극이다.

시즌1과 크게 달라진 점은 캐릭터 설명을 과감히 생략했다는 점이다. ‘검법남녀’를 시즌2부터 접한 시청자라면 백범(장제영 분)이 교통사고로 죽은 연인의 기억을 품고 살아오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시즌2에서 백범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뿐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통명스럽게만 신중하며 속단하지 않는다. 그의 예민한 디테일을 통해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장르적 쾌감은 배가 된다.

드라마는 시즌2에서 캐릭터 대신 사건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렸다. 시즌1부터 화제가 된 부검 장면은 시즌2에서도 여전히 생생하다. 신체 장기를 꺼내는 부검 장면은 자칫 거부감을 줄 위험이 있지만, 정제영의 차분한 연기는 부검 과정을 경건한 제사 의식처럼 보이게 한다.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조연들의 연기 또한 자연스러워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다.

시즌1에서 검사가 헛발질하면 법의관이



사건을 해결하는 구도가 반복됐지만, 시즌2에선 이러한 구도가 대폭 보강돼 검찰과 국과수의 공조가 두드러진다.

‘1학년 검사’ 은술 캐릭터도 시즌2에선 달라졌다. 전 시즌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캐릭터로 ‘민폐’ 논란까지 일었지만, 이번 시즌에선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2회에서 부장검사는 은술에게 “검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은술은 오히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년 전 의욕만 앞선 모습에서 한결 성숙해진 그는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난제를 해결해간다.

노도철 PD는 “시즌1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세트, 캐릭터, 소품, 미술 등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9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시카고 컵스:LA다저스)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야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KBS 뉴스	00 퍼퓸(재)	2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5 12 MBC 뉴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2019 FIFA U-20 월드컵 선수단 환영식 50 동물의 건축술 플러스(재)		00 2019 U-20 월드컵 대표팀 환영식 45 검법남녀 시즌2(재)	00 2019 FIFA U-20 월드컵 대표팀 환영행사 40 SBS 12뉴스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2019 FIFA U-20 월드컵 특집 <달려라 스피디 이강인>	55 2시 뉴스 외전	00 KBC 특집드론 드라나는 5.18 진실, 과제는? 55 닥터 365
2	50 미니다큐(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뽀뽀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5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제보자들(재)	25 빠샤 매거진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풍지락
8	30 여름야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퍼퓸	05 스트레이트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토론쇼 시민의회 스페셜	10 안녕하세요	10 광주MBC 드라마 특선 국민의 일꾼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40 KBS 뉴스 50 이웃집 찰스(재)	35 비바 K리그	0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5 검법남녀 시즌2(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큐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똥똥똥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시청자와 함께하는 1부 둘이서 좋은 중국 원년생>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나의 친애하는 동물 친구들 1부>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글로벌 애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똥똥똥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7일(음 5월 15일 乙酉)

<p>36년생 시각적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자. 48년생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조짐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60년생 돈이 관건이 되리라. 72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84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95, 09</p>	<p>42년생 유기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반복될 뿐이다. 66년생 표면의 현상을 역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78년생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점을 노출 시킬 것이다. 90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33</p>
<p>37년생 행운의 그림자가 비친다. 49년생 잘 풀려 나가는 양상이니라. 61년생 효험 있는 약은 입에 쓰고 도움 되는 말은 귀에 거슬러는 법이다. 73년생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85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이익이 따르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02</p>	<p>43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다. 55년생 예기치 못한 걱정거리가 생기겠다. 67년생 과분하게 언행 하는 것은 옳은 복을 발로 차내는 것과 같다. 79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 91년생 우연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0, 19</p>
<p>38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하는 고통이 있다. 50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62년생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74년생 중요한 일으므로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 86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64, 28</p>	<p>44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56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 해지리라. 68년생 대단히 흥겨운 날이 될 것이다. 80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92년생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01, 11</p>
<p>39년생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서 돌이켜 보아겠다. 51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63년생 역량을 발휘 하여야만 한다. 75년생 절제한 관습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87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16, 63</p>	<p>45년생 당연시 해왔던 점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57년생 어찌할 도리가 없다. 69년생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임하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81년생 현혹된다면 순간적으로 오만할 소지가 있다. 93년생 타산지적으로써 본 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25</p>
<p>40년생 예상이 완전히 빔나가 버릴 수 있다. 52년생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모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76년생 이면의 가치까지 감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88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처했을 때 결과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80, 77</p>	<p>34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다면 편할 것이다. 46년생 성과를 가져올 만한 원인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58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결실을 맺는다. 70년생 익숙하고 단련이 되어 있어서 할 만 하리라. 82년생 정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꼭 이루어리라. 행운의 숫자 : 88, 34</p>
<p>41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53년생 당당하게 나아가서 뜻을 펼쳐도 될 때다. 65년생 어둠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미래가 밝아 온다. 77년생 새 모습으로 바꾸어 불 필요가 있다. 89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속 태울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0, 49</p>	<p>35년생 일의 선후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47년생 비웃을 때 비로소 재를 수 있는 법이다. 59년생 한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치러진다. 71년생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83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행운의 숫자 : 29, 24</p>